

“학술진흥과 조직성장으로 총화를 이루는 한해가

다사다난하였던 무진년을 보내고 희망의 기사년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 협회의 모든 회원과 직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민주화 물결속에서 제 6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파란만장했던 정치상황속에서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뤄 한국민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노사간의 어려운 분쟁속에서도 수출입총액이 1,000억 불을 돌파하는 등 사상유례없는 경제적 신장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에서 사회와 국민의 소망은 한결같이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기울어졌으며 특히 산업안전과 보건의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의 하나로는 사업장에서 직업병이 잇달아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즉 형광등제조공장에서의 수은중독, 도금공장에서의 크롬중독, 연취급사업장에서의 연중독, 비스코스·레이온공장의 유화수소중독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고 동제련공장에서의 카드뮴중독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노동부에는 직업병판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또한 본 협회에는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업병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자각에 따른 유해부서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의 요청이 쇄도해옴으로써 바빴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래전부터 이러한 직업병 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실시해 온 것으로서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의 유해대상 부서에 대한 보고나 조사를 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사 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피차 공개되기를 꺼려왔던 풍조와 함께 행정부는 일선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강력한 시책도 펴지 못했던 점등 여러 복합원인들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누적된 폐단의 현실에 비추어 직업병 특수검진반을 구성하고 취약점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한바 많은 건강상의 이상소견자들이 발견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아울러 직업병예방이 정부의 장단기시책에 주요정책 과제로 결정됨에 따라 강력히 그 시책을 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한낱 구호나 장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실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사업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장내의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들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산업보건사업의 “퇴기를”



회 장
조 규 상

들에 대한 자질의 향상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들은 인력이나 시설, 재력 등 모든면에서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과 기구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본 협회는 바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기관을 지정하였고 이들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발족한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적으로는 많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건강진단기관의 올바른 검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업무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나해에는 협회에 전국지부망을 연결하는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검진기관에서의 근로자 검진실적을 토대로 한 건강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사업은 일부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신고를 받는 방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사업장이 지역별로 등록이 되어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 산업보건사업을 위한 조직이 이루어져 각 사업장이 이를 중심으로 사업장내에서의 보건을 위한 개선과 지도활동이 전개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보건사업이 민간주도로 보다 성실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은 결코 수익사업이 될 수 없으며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민간 전문단체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진단과 연구를 위한 의료기자재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맥으로서 금년에는 산업보건에 관련하는 학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참으로 새해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은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일우의 이 귀중한 해에 있어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역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